

- 주요 뉴스: 미국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주가 하락 가능
 - IMF 총재, 각국의 통화 및 재정 당국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충격 대비가 필요
 - ECB,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 증대. 통화긴축 속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 중국 상하이시, 6월부터 보다 많은 기업의 조업 정상화를 기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고물가 지속 및 경기둔화 우려 등이 영향
 주가 하락[-0.6%], 달러화 약세[-0.9%], 금리 하락[-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고강도 통화긴축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지수는 소매업체의 실적 부진 등으로 1.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그 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 출회 지속 등이 원인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1.2%,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8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63.8원, -13.9원) 1.1% 하락, 한국 CDS 상승

		5/19일	5/18일	전일대비			5/19일	5/1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00.8	3,923.7	-0.58%	국채 금리 10y	미국	2.84%	2.88%	-5bp
	유럽	427.99	433.95	-1.37%		독일	0.95%	1.03%	-8bp
	중국	3,097.0	3,086.0	0.36%	CDS 5y	한국	48bp	45bp	3bp
	일본	26,403	26,911	-1.89%		중국	86bp	84bp	2bp
	한국	2,592.3	2,626.0	-1.28%	위험 지표	EMBI+	-	418	-
환율	달러지수	102.89	103.81	-0.89%		VIX	29.35	30.96	-5.20%
	유로화	1.0588	1.0464	1.19%		WTI유	112.21	109.59	2.39%
	엔화	127.79	128.23	0.34%	원자재	구리	428.5	418.2	2.46%
	위안화	6.7125	6.7542	0.62%		금	1,841.9	1,816.6	1.39%
	원화	1,277.7	1,266.6	-0.8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주가 하락 가능

- 조지 총재는 투자자들이 향후 통화긴축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길 원한다고 언급. 또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금융시장 여건이 보다 긴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부연
- 이번 발언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부각.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정책이 주가하락을 통해 가계의 부를 훼손하며, 이는 결국 가계소비 감소와 일자리 및 소득 둔화 등을 연쇄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미니애폴리스 연은 카시카리 총재는 가계재정이 이전의 위기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에 연준은 보다 강력한 통화긴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 다만 공급차질 문제의 경우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
- 한편 옐런 재무장관은 안정적인 물가 기대를 제공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 또한 탈세계화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추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 총재, 각국의 통화 및 재정 당국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충격 대비가 필요

-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각 국가의 정책 책임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주장. 한편 에너지 및 식품가격 급등으로 경기침체를 유도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

■ 미국 재무장관, G7은 우크라이나에게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방침

- 옐런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지원을 활용하여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발언. 이번 회의를 통한 지원 규모는 150억달러를 상회한다고 부연

■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1월 이후 최대, 노동 수급 일부 변화 가능성

- 5월 2주차의 해당 건수는 21.8만명으로 전주 대비 2.1만명 증가. 블룸버그의 Eliz Winger는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결과를 고려 시 수요 우위 여건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

■ 미국 4월 기존주택판매, '20년 6월 이후 최저. 모기지금리 상승 등에 기인

- 해당 판매건수는 연환산 561만건을 기록하여, 전월(575만건) 및 예상치(565만건) 하회. 이는 최근 모기지금리 상승 지속 등에 기인. 한편 기존주택 가격은 39.1만달러로 전년동월비 14.8% 오르며 사상 최고치

■ ECB,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 증대. 통화긴축 속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 4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통화정책 완화를 긴축으로 전환해야 한데 공감했지만 관련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 일부는 즉각적인 긴축을 주장한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이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
- 한편 데 쿼도스 부총재는 단기적 측면에서 역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으나 경제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기에 신중한 대응이 적절하다고 강조.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도 결국 목표치 부근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

■ 유럽위원회, 내년까지 역내 재정준칙 적용 보류 연장을 제안할 전망

- 당초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행한 재정준칙 적용 보류를 금년까지만 유지하려 했으나, 최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내년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 시장에서는 다음 주 이와 관련된 사항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상하이시, 6월부터 보다 많은 기업의 조업 정상화를 기대

- 상하이시 종밍 부시장은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신속하게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 다만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조업 재개 여부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 여부에 좌우된다고 부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5/19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2.6, 4월(17.6), 예상치(16)
- 유로존 3월 경상수지(억유로): -16, 2월(157), 예상치(-)

■ 주요 경제 이벤트(5/20 현지시각 기준)

- 중국 인민은행 금리 결정, ECB 레인 이사 강연, 유로존 5월 소비자산회
- 유로존 4월 생산자물가, 일본 4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재정지출과 세제의 조합이 중요 - 블룸버그

(The US Needs to Get Real About Taxes and Inflation)

-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통화정책 뿐 아니라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정책에 대한 논의도 요구. 먼저 행정부와 의회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될 때까지 수요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에 신중할 필요
- 또한 이익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은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면서, 수요 증가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고수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시 증가할 우려

■ 미국 달러화 강세, 신흥국 경제 및 선진국 증시에 부정적 영향 - Financial Times

(Nowhere to hide)

- 최근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및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여건 등이 달러화 강세를 견인. 이에 신흥국은 식량 및 에너지 수입, 달러화 부채 상환 관련 어려움이 가중. 관련 여파는 선진국에도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
- 달러화 강세는 대출자의 재무상태를 악화시켜 신용 여력 축소, 실질투자 부진 등을 초래. 또한 글로벌 유동성 감소가 발생하여 광범위한 자산가격 하락을 유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 확대를 해소하려면 달러화 강세 종료 여부가 관건

■ 글로벌 위기 대응, WTO가 일부 국가 중심의 경제 블록보다 효과적 - Financial Times

(Global insecurity is no reason to divest from the WTO)

■ 유럽의 태양광 재건 계획,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축소의 일환 - WSJ

(Europe Plots Solar Revival to Replace Russian Gas)

■ 일본의 물가상승 및 엔화 약세, 임금 인상의 여건을 조성 - 블룸버그

(Workers in Japan Should Ask Their Bosses for a Rais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